

한국 현대 실내공간에서의 전통성 표현 경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ressive Tendency of Traditional in Korean Contemporary Interior Space

전경희* / Jun, Kyong-Hee
남경숙** / Nam, Kyung-Sook

Abstract

With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build-up of global network in the 21st century, Korea has recklessly accepted Western information and culture in recent years, thus causing damages to our identity. In the situation, restoration and development of traditions in a modern way will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contemporary interiors. This study has analyzed and assessed the process through which traditional decorative elements have applied to contemporary interior decorations over the past ten years with a view to identify the trend of expressing traditional elements in contemporary interiors.

Designs that have applied traditional elements in a transfigure expression method amounted to 77 pieces, accounting for 43% of the total investigated 178 designs, which was followed by 48 designs (27%) of metaphor expression method and 39 designs (22%) of symbol expression method, which express the tradition as interpreted by the designer. Designs that have adopted direct expression method amounted to no more than 14 pieces, accounting only for 8% of the total designs. This result suggests that transformative, metaphoric and symbolic expressions that simplify or transform the original forms are more frequently used in the applications of traditional elements to modern interiors rather than directive expression that reproduces the original form as it was.

키워드 : 전통성, 전통의장요소, 현대 실내 공간, 표현방법

Keywords : Traditional, Traditional design elements, Contemporary interior space, Expression method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전 세계를 통합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우리 사회는 서양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왔다. 그 결과 문화의 보편성이라는 현상이 등장함으로써 전통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건축 및 실내공간에서도 나타났다. 즉 보편성을 추구하는 국제주의 건축양식들의 공간들은 낯설지 않지만 우리의 기본 정서에 부합되지 못하여, 전통성의 재구현과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전통의 가치를 찾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것을 객관화하고 그 비판을 통하여 현재의 문화와 미래의 문화에 대한 대응력을 갖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라져 가는 전통의

가치를 찾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통성 표현 요소와 디자인 방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현대 실내공간에서의 전통성 표현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대 실내공간에 전통성이 표현된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통의장요소의 적용을 중심으로 사례조사를 하였다. 여기서 전통의장요소의 시대적 범위를 조선시대로 한정하였으며, 이는 한국의 전통문화가 조선시대에 와서 완성되었다는 관점¹⁾에 근거를 두었다. 전통의장요소는 재료, 색채, 문양²⁾을 중심으로 전통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전통성의 표현수단이 되는 전통의장요소의 특성과 현대 실내공간에서 전통의장

1) 신인호, 한국 전통주택의 실내색채 구성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문, 1998

2) 재료는 형태 조성의 근본이 되며, 색채를 결정하는 기본 요인이 된다. 색채는 감각적인 요소로 민족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문양은 형태와 선, 색채의 요소를 모두 담고 있어 전통의장요소를 대표한다고 판단.

* 정희원, 한양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학과 석사

** 정희원, 한양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학과 부교수

요소가 표현되는 디자인방법을 고찰하였다. 둘째, 한국의 전통성을 표현한 현대 실내공간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조사와 현장답사를 행하였다. 문헌은 1995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발간된 건축 및 인테리어 전문지의 정기간행물(공간, 월간 인테리어, 플러스, 마루)을 중심으로 여기에 소개된 실내공간과 서울시내 소재 특급호텔의 현장조사³⁾로 하였다. 시기적 범위를 1995년 이후로 선정한 이유는 전통성의 표현 경향이 1990년대 들어서면서 관심이 고조되어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수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현대 실내공간에 나타난 한국적 전통성 표현을 객관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내용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결론을 유출하였다.

2. 조선시대 건축의장요소 특성

2.1. 전통재료의 특성

전통건축에서 사용된 재료는 주가 되는 가구재로서의 목재가 있으며, 기단 및 기초부분에 사용되는 석재, 바닥과 벽체를 형성하는 지재(紙材)와 흙, 토재(土材) 그리고 점토를 소성가공하여 만든 전, 기와 등이 있다. 그리고 초재(礎材), 금속류 등의 기타 재료가 있으며, 이들은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들 재료 중 목재와 석재는 자연재료를 가공하여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밖에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재료를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1) 전통건축의 주재료 특성

전통건축의 주재료는 목재, 지재, 석재, 기와, 전돌, 흙과 토재가 있으며, 이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전통건축의 주재료 특성

구분	특성
목재	· 80% 이상이 육송 · 건물 구조의 뼈대가 되는 기둥, 처마, 공포, 마루, 난간 등의 중요한 구조재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지재	· 벽체의 창호부분에 창호지 사용, 실내공간의 벽과 천장 부분에는 한지 사용, 대부분의 방의 입면에 종이 마감
석재	· 건물의 기단부 또는 담장을 쌓을 때 사용 → 바닥, 기단, 초석, 석축 등 · 석재는 양이 풍부하며, 양질의 화강암, 편마암, 안산암, 석회암 및 사암 등 산출 → 대부분 화강암 사용 · 재료의 특성상 조적하여 사용 · 건물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중요한 재료
기와	· 주로 좋은 흙을 소재로 하여 형글이나 형와 등 제작 톨을 이용하여 만들 · 지붕의 빗물을 막아 줄뿐만 아니라 외벽의 유지, 보존할 수 있는 내구성과 방화성이 뛰어남 · 기와의 종류-암·수키와, 암·수 막새기와, 서까래 기와, 수막새, 암막새 등
전돌	· 목재와 석재가 갖고 있는 단점과 미비점 보완 · 독특한 조형적 특성 발휘 → 건축문화 발달에 기여 · 내구력이 강하고 방화성이나 방한성이 뛰어남
흙과 토재	·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흙과 토재는 건축 재료로 자주 사용 · 흙-바닥의 재료로 사용하였으며, 냉기와 열기를 고루 차단하고 습도조절과 통풍효과가 뛰어남 · 토재-벽체, 담장, 기단 부위 사용하였으며, 표면 질감이 곱고 부드러우며 지푸라기를 섞어 짓기여 바르면 곰팡이가 생기지 않으며, 사시사철 벽의 습도를 고르게 해 줌

3) 현장조사로 호텔을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외국인들에게 그 나라의 전통, 문화 경제수준 등을 외국에 직접 전달하게 되는 매개체로써 수준 높은 디자인을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2) 전통건축의 기타재료 특성

전통건축의 기타재료로는 초재, 금속재가 있으며, 이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전통건축의 기타재료 특성

구분	특성
초재	· 벗짚류에 속함 · 주로 서민층의 초가지붕 재료로 많이 사용 · 벽체에 흙과 혼합하여 강도를 높여 사용 · 지붕과 벽체에 사용
금속재	· 장식역할을 하는 곳에만 부분적으로 사용 · 문손잡이, 용마루 장식부분, 벽체장식, 풍경(風磬) 등에 사용 · 금속자체만 사용하기도 하며, 그 위에 채색이나 금박을 입혀 사용하기도 함

2.2. 전통색채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전통색채의 개념을 색채 활동이 이루어지는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자연환경의 색채와 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마감재의 색채, 궁궐과 사찰에서 사용한 단청색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1) 전통건축의 배경으로서 자연환경의 색채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여 계절마다 노랑과 연녹에서 짙은 녹색, 홍색과 갈색, 짙은 나무색과 무채색 등의 독특한 색채 변화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물과 하늘, 산, 나무, 흙에서 보다 섬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하늘의 색은 명도는 높고, 채도는 낮은 푸른색 계열이다. 흙의 색은 검은색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색상 및 명도, 채도의 범위를 지니고 있는데 황토의 경우 붉은색과 주황색을 띠며, 분회의 경우 회색이나 노랑색을 띠는 회색을 띤다.

(2) 전통건축의 색채

궁궐, 사찰, 서원 등을 제외한 개인주택의 색채는 무채색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는 건축에 사용된 재료인 목재, 석회, 지재를 채색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주택에서 시각적으로 지각이 가능한 마감 재료를 중심으로 색채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전통건축의 개인주택에 사용된 색채는 벽이나 창은 한지, 창호지, 닥지, 회벽 등의 회백색조이며, 검게 퇴색한 목재 대문과 기와는 검정색 계통, 마른 벗짚의 누런 초가지붕, 황토색 벽체의 노란색계통은 무채색으로 실내에서는 고명도의 저채도 색상이 사용되어 부드럽고 은은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표 3> 전통건축의 재료로 본 색채의 특성

구분	특성
목재	· 전통건축의 주재료로 구조재를 그대로 노출시킴으로써 나뭇결 표현 · 나무의 색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공법에 치자물을 타서 고르게 함 · 시간이 지나면 거무스름한 색으로 변함 · 색채-나무색, 검은색의 무채색
석회	· 지붕, 벽체, 담장 등에 사용 · 회벽으로 매끄럽게 처리된 흰색의 벽면은 검은색의 마룻바닥과 아름다운 대비를 이룸 · 색채-흰색의 무채색, 노란색 계열의 난색
지재	· 온돌로 마감된 실내색채는 구들 위를 마감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색채-흰색의 무채색, 노란색 계열의 난색

(3) 단청색

궁궐과 사찰, 서원의 경우는 단청을 이용하여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기도 하지만 격식과 권위를 색채를 통해서 표현하였다. 그래서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보면 개인 주택의 단청을 금하였고(사당은 예외), 궁궐, 사찰, 서원 등에도 건물의 품격과 성격에 따라 색채가 다름을 알 수 있다.⁴⁾

단청색의 사용과 배열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졌지만, 강렬한 대비와 찬란한 표현은 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단청은 건물 내외의 장식에 따라 색채를 달리하였다.

외부단청은 밝은색 계통의 황색을 현저하게 증가시켜 장식의 명도를 높였으나 실내단청은 광선의 명도가 외부의 단청보다 낮은 것을 고려하여 주로 녹색으로 처리함으로써 장식의 명도를 높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단청은 실내에서나 실외에서 다같이 선명하게 되었다.⁵⁾

단청은 다섯 가지로 나누어 건물의 부재별로 채색을 하며, 기둥·도리·보·창방·평방 등의 체목부(體木部)와 주두·소로·화반·첨차·동자기둥 등의 공포, 서까래·부연·구리대(착고)·개관 등의 처마, 우물반자 등의 천장, 창호·판벽·용지판 등의 창호와 벽체 등으로 나눈다.

2.3. 전통문양의 특성

전통문양은 다른 나라의 문양과는 구분되는 양식을 지니며, 한국인의 멋과 정서, 해학과 우아함, 그리고 질박함이 고유한 조형 감각으로 여과되어 형성된 것으로 각각의 문양은 조형성을 표현하고 있다.⁶⁾ 건축에서의 문양은 많은 변화가 있어 다양하면서도 통일성이 뚜렷하여 반복(反復), 교체(交替), 대립(對立), 주조(鑄造) 등의 모든 미학적 질서의 기본원리가 적용되어 있다.⁷⁾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문양을 구분하기에 사용되는 실외공간의 것과 실내공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고찰하였다.

(1) 실외공간의 문양

전통건축에서 사용된 실외공간을 구성하는 기단, 초석, 벽체, 담장, 지붕, 대문, 굴뚝을 중심으로 문양을 고찰하였다.

기단은 신분에 따라 재료, 다듬어진 정도, 높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문양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초석과 벽체에는 문양이 간혹 쓰였다. 담장은 궁궐이나 사찰의 꽃담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지붕에서의 문양은 기와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문양이 입체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공포는 상류주택의 익공식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대문은 상단 가로대의 태극문양이 사용되었으며, 굴뚝의 본체부분에서 포도,

화훼, 길상문 등의 문양이 사용되었다. 이상의 전통건축의 외부 공간에서 사용된 문양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전통건축의 실외공간에 나타난 문양

구성요소	실외공간에 나타난 문양
초석	연화문
벽체	방화장벽-벽돌조적에 따라 규칙적인 문양 간혹 길지(吉)문, 쌍희(喜)문
담장	글자문, 동물문, 식물문(꽃문)
지붕	식물문, 사형문, 글자문, 기하문, 길상문(태극), 귀면문 등 다양함
공포	식물문, 글자문, 기하문
대문	태극문, 동근문, 기하문
굴뚝	식물문, 기하문, 글자문

(2) 실내공간의 문양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천장, 바닥, 내부벽체, 기둥, 창호, 난간을 중심으로 여기에 적용된 문양을 고찰하였으며, 이에 대한 특성을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 전통건축의 실내공간에 나타난 문양

구성요소	실내공간에 나타난 문양
천장	식물문, 글자문(머릿대공부늪)
창호	글자문, 기하문, 살대문 창호 아래 머름간 - 여의두문
난간	동물문, 글자문, 기하문, 길상어문 변형된 여의두문

3. 현대 실내공간에서의 전통성 표현방법

3.1. 형태에 의한 표현방법

(1) 직접적 표현방법

전통건축의 의장요소를 형태적으로 그대로 모방하거나 복사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 표현의 장점은 전통의 표현이 명확하게 제시되므로 감상자가 전통성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표현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중들은 쉽게 전통성을 인식하며 전통요소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한 실내 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그러나 대중들과는 달리 현재와 미래의 계승을 의식하는 많은 전문가들과 건축비평가들은 이 방법을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점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렇듯 전통의 형태를 모방 및 모사한 표현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많은 변화요인으로 인하여 현시점에서 과거의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의 대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 표현 방법을 전통의장요소인 재료, 색채, 문양 모두가 전통적인 원형의 형태를 그대로 적용되어 표현되어진 디자인 사례들로 보았다.

8) 정덕훈, 한국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건축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론, 1987, p.36

4) 한석성,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단청, 현암사, 2004, p.147

5) 김동현, 한국목조건축의 기법, 발언, 2002, p.265

6) 최지연, 전통주택에 사용된 문양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론, 2002, p.24

7) 양수영, 한국 전통미술과 문양의 상징적 의미를 도입한 작품 연구, 덕성여대 석론, 1993, p.6

2) 변용적 표현방법

직접적 표현방법의 절충방법으로써 전통건축의 의장요소들을 현대적으로 단순하게 변형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대중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다.⁹⁾ 이 방법은 현대화된 재료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한 방법으로 전통성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즉, 전통건축의 구조양식이 구조형식과 마감재료 등이 현대화 된 것을 의미한다. 경제, 기술, 과학 등의 발달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생활습관과 문화가 변한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전통요소도 현대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변형되면 본래의 이미지로부터 벗어나 버릴 위험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의 변용적 표현방법을 재료의 변형 또는 전통의 장요소를 부분적으로 단순하게 변형하여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보았으며, 일반적으로 표현이 어렵지는 않아 현대공간과 접목 시키는데 무리가 없는 방법이다.

3.2. 내용에 의한 표현방법

(1) 은유적 표현방법

은유의 사전적 의미는 은유법의 준말로 수사법상의 비유법으로 원래 관념은 숨기고 보조관념으로만 설명하거나 그 특질을 묘사하는 표현 방법이며¹⁰⁾ 일상 언어를 사용하면서 의미 없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의 심장, 내 마음은 호수, 시간의 파괴력, 대도시의 정글 등의 표현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은유가 언어에서 가지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과정에 있어서 의미의 다양함과 풍부함을 제공하며, 사고와 해석의 과정에서 창조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은유적 표현 방법은 은유의 사전적 의미를 토대로 디자이너가 공간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다른 것에 비유하여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는 방법으로 정의하였다.

(2) 상징적 표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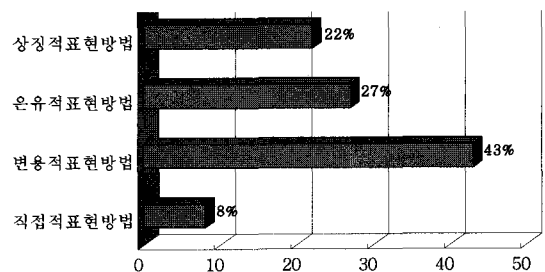
상징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상이나 개념에 대하여 상기·연상시키는 구체적 사물을 감각적인 말로 바꾸어서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인간이 자신의 외부세계에 대한 경험을 인식하는 과정을 통하여 대상에 관하여 생각하고, 그 생각을 전달하기 위하여 형식을 부여하는 것이다. 여기서 상징의 사전적 의미와 일반적 의미를 토대로 정리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상징적 표현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개념들을 구체적 요소로 바꾸어 새로운 디자인으로 표현하려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징적 표현방법을 상징의 의미를 토대로 현대 실내공간에 현대적인 마감재를 이용하여 전통건축의 구조역할을 하는 기둥, 서까래, 보 등이 연상되는 디자인으로 보았

며, 굳이 전통건축에서 보이는 구성요소가 아니더라도 전통적인 사물, 색채, 문양이 연상되는 디자인을 상징적 표현 방법으로 보았다.

4. 현대실내공간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 사례

현대 실내공간에 전통의장요소를 적용한 디자인 사례는 전체 178건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직접적 표현 방법은 14건으로 전체의 8%로 나타났다. 변용적 표현 방법은 77건으로 전체의 43%로 나타나 대부분의 디자인 사례들이 변용적 표현 방법은 전통성을 표현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은유적 표현 방법은 48건으로 전체의 27%, 상징적 표현 방법은 39건으로 전체의 22%로 내용적 측면의 방법론들이 전통성을 표현하는데 잘 활용되고 있다.



<그림 1> 디자인방법론의 따른 디자인 사례 백분율

4.1. 직접적 표현 방법

(1) 재료의 특성

직접적 표현 방법에서 나타나는 재료의 특성¹¹⁾은 구조 역할을 하는 목재와 흙, 토재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기와는 지붕의 부재로서 외부에 그대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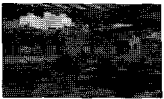








목재는 공간을 형성하는 기본 뼈대가 되는 기둥과 천장에서 서까래와 보의 중요한 구조재로써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창호의 창살에서도 사용하였다. 흙과 토재는 벽체와 서까래 사이에서 회벽으로 사용되었으며, 지재는 방의 벽체와 천장의 마감재로서 한지를 이용하거나 일반 벽지를 이용하여 마감처리를 하였다. 전통건축의 바닥은 종이를 이용한 장판지 마감을 하였으나 현재는 장판지 무늬로 된 비닐계 장판을 사용하였으며, 석재와 전돌은 외부의 담과 바닥에 사용되었다.

9)정덕훈, Op. Cit., 1987, p.38

10)신론사이스, 동아출판사, 1984, p.1504

11)전체 178건의 14건 디자인 사례 중 목재 14건, 흙과 토재 11건, 지재 11건, 기와 9건, 석재 2건, 전돌 1건 등으로 직접적으로 표현되어졌다.

<표 6> 현대 실내공간에 적용된 전통 재료 사례

구분	전통 재료가 사용된 공간		
목재			
	새미골(신동건, 1996)	민가다현(박진배, 2002)	니드21(유정환, 1997)
지재			
	안국동 주택(2002)	하신리주택(김개천, 1997)	진연(2003)
기와			
	가람화랑(최정화, 2001)	다담선(참공간, 2002)	민가다현(박진배, 2002)
흙과 도재			
	혜회동주택(유정환, 1997)	선녀와 나무꾼(김상분, 2001)	다담선(참공간, 2002)
전돌과 석재			
	가람화랑(최정화, 2001)	선녀와 나무꾼(김상분, 2001)	새미골(신동건, 1996)

(2) 색채의 특성

색채는 단청색의 적용과 전통건축의 재료에 나타나는 색채 두 가지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직접적 표현 방법에서 14건의 디자인 사례 중 단청을 적용한 공간은 유정환의 니드21 Studio(1997)로 단청을 이용하여 벽면을 처리함으로써 다른 공간과 연계되는 방식을 채택 하였다. 나머지는 전통건축의 재료에서 나타나는 색채의 특성을 적용하여 표현되어진 현대 실내공간들로서 전체적으로 무채색조가 강하게 나타나며, 시각적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바닥, 벽, 천장이 목재류의 갈색계열과 회벽의 회백색계열을 함께 사용하여 색상 면에서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표 7> 현대 실내공간에 적용된 전통 색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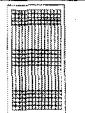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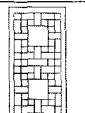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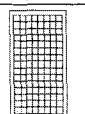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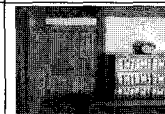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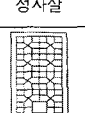



주조색	전통 색채가 사용된 공간		
			
갈색계열	안국동 주택(2002)	민가다현(박진배, 2002)	리츠칼튼(류춘수, 1995)
			
진한 갈색계열	다담선(참공간, 2002)	진연(2003)	민가다현(박진배, 2002)
			
회백색계열	차 박물관(2003)	진연(2003)	새미골(신동건, 1996)

(3) 문양의 특성

전통문양은 외부와 내부를 연결시켜주는 문의 창살에서 나타났으며, 창살은 주로 띠살문이 나타나며, 외부의 문에서는 복합문으로 띠살문과 귀갑문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다. 내부의 문에서는 주로 완자살이 사용되었으며, 창의 창살에서도 사용되었다. 창호뿐만 아니라 환기구에도 정자살을 사용하여 전통 공간으로 표현하였다.¹²⁾

실내공간에 적용된 사례는 띠살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아자살과 완자살의 경우는 주로 주거공간에서 사용하였다. 정자살은 창호에서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귀갑살과 복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환기구에서도 사용하였다.

<표 8> 현대 실내공간에 적용된 전통 문양 사례

구분	전통 문양이 사용된 공간		
			
띠살	차 박물관(2003)	진연(2003)	하신리 (김개천, 1997)
			
아자살	민가다현(박진배, 2002)		안국동 주택(2002)
			
정자살	진연(2003)	가회동 주택 (테크노스 빌, 2002)	안국동 주택(2002)
			
귀갑살	리츠칼튼 룸 (류춘수, 1995)	진연(2003)	다담선(참공간, 2002)

4.2. 변용적 표현 방법

(1) 재료의 특성

재료의 특성은 기능적인 면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목재는 직접적인 표현방법에서 구조재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변용적인 표현방법에서는 기둥, 서까래, 보의 형태를 단순하게 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주었다. 지재는 주거공간과 식음료 공간 등의 방에서 벽과 천장의 마감재로 사용하였다. 주거공간은 주로 일반벽지를 사용하였고, 식음료공간은 한지와 전통문양이 있는 일반벽지를 사용하여 전통성을 표현하였다. 특히 지재로 마감된 벽과 천장은 화려하지 않으면서 은은한 멋을 더하며, 석재, 전돌, 기와는 전통건축의 주재료였지만 변용적 표현 방법에서는 단지 전통성을 표현하는 부재료만 사용되었으며, 특히 기와의

12) 띠살 9건, 정자살과 아자살 각각 3건, 완자살과 귀갑살 2건, 용자살 0건으로 나타났다.

수키와는 토재와 함께 담장으로 쌓아 사용되었다. 흙과 토재는 벽체와 천장에 석회와 황토 등을 이용하였다.¹³⁾

<표 9> 현대 실내공간에 적용된 전통 재료 사례

구분	전통 재료가 사용된 공간		
목재			
	VERMILION HOUSE (노정호, 1998)	한마당(NEED 21, 1995)	큰 기와집 (김은, 2003)
지재			
	에이제 (인리빙디자인, 2002)	한국집(김영옥, 2006)	롯데호텔(잠실점)-무궁화
기와			
	무진주(이오공간, 2002)	규합총서(박상훈, 2001)	포도호텔 (이타미준, 2002)
흙과 토재			
	한마당(NEED 21, 1995)	레스토랑 파파 (손석진, 1996)	카사비앙카 (문동철, 1999)
전돌과 석재			
	경복궁	에이제 (인리빙디자인, 2002)	무진주(이오공간, 2002)

(2) 색채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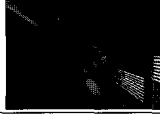






변용적 표현방법에서 77건의 디자인 사례 중 단청을 적용한 공간은 5건으로 매우 드물게 나타났지만, <표 10>에서 나타나는 디자인 사례들과 같이 공간의 권위와 품격을 표현하기 위하여 단청색을 이용하였다. 나머지는 전통건축의 재료색채 특성을 적용하여 표현되어진 현대 실내공간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벽과 천장의 경우 벽지, 한지, 창호지 등의 지재와 회벽으로 마감 처리하여 회백색계열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바닥공간은 목재와 장판지로 마감 처리를 하여 갈색계열이 나타나며, 창호 틀에서 나타나는 색채 또한 저명도·저채도의 색채가 사용됨으로써 가는 선적인 요소도 하나의 실내공간을 구성한다.

<표 10> 현대 실내공간에 적용된 단청색 사례

전통 단청색이 사용된 공간			
			
레스토랑 파파 (손석진, 1996)	한국담배인삼공사 (리스건축, 1999)	직지사성보박물관	문화궁 (오픈스페이스, 2002)

13)전체 178건의 77건 디자인 사례 중 목재 61건, 흙과 토재 27건, 지재 41건, 기와 5건, 석재 12건, 전돌 1건 등으로 변용적으로 표현되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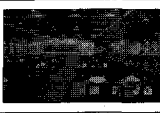

<표 11> 현대 실내공간에 적용된 전통색채 사례

주조색	전통 색채가 사용된 공간		
			
갈색계열	배삼면 주가 (마영범, 2000)	새벽파도 (정희정, 2003)	봉추 찜닭 (유희근, 2002)
			
회백색계열	TIVOLI (파라디자인, 1995)	테라조(1997)	청청현(손복출, 1999)

(3) 문양의 특성

문양은 창살의 종류 중 정자살의 사용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띠살이 많이 나타났다. 띠살은 전통공간을 표현하는데 있어 직접적 표현방법과 변용적인 표현방법에서 두드러지게 사용하였다. 또한 현대에 와서는 경제적인 요인과 복잡한 문양을 만드는 장인들의 부족으로 용자살과 정자살, 빗살의 쓰임이 완자살과 아자살의 적용된 공간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창살들은 창호뿐만 아니라 <표 12>와 같이 벽과 천장, 가구, 조명 등에 응용하여 장식적으로 사용하였다.¹⁴⁾

<표 12> 현대 실내공간에 적용된 전통 문양 사례

구분	전통 문양이 사용된 공간		
			
정자살	한국담배인삼공사 (리스건축, 1999)	NTNE BRIDGES GOLF RESORT(박진, 2001)	프레지던트 호텔/Jumbo
			
띠살	명가 (최은영, 1996)	건축가 류춘수의 집 (유춘수, 2000)	청담동 진흥아파트 (신구철, 2001)
			
빗살	문화궁 (오픈스페이스, 2002)	서초동 미켈란 (최시영, 2004)	새벽파도(정희정, 2003)
			
용자살	박대성 아플리에	명가원 (최은영, 1996)	한국집(김영옥, 2005)
			
귀갑살	그랜드 호텔	신라호텔 서라벌 (오의조, 1996)	롯데호텔(잠실)/무궁화

14)띠살 14건, 정자살 16건, 아자살 1건, 완자살 4건, 귀갑살 9건, 용자살 9건으로 나타났다.

4.3. 은유적 표현 방법

(1) 재료의 특성

우리는 습관적으로 목재, 지재, 석재에 대한 친숙함과 전통 소재로서의 잔재로 인하여 다른 전통재료들보다 이들을 두드러지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¹⁵⁾ 이렇게 전통건축의 재료들을 은유적 표현방법에서 현대 실내공간에 사용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전통건축의 재료들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현대 실내공간에 친근감을 주었다. 둘째, 전통적 느낌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현대적인 재료들이 많이 생성되고 선택이 가능해짐으로써 굳이 전통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전통적인 공간을 표현할 수 있다.

<표 13> 현대 실내공간에 적용된 전통재료 사례

구분	전통 재료가 사용된 공간		
목재			
	빛과 벽 (박성철, 2000)	mana(양진석, 2000)	용천리 배교수 작업실 (조병수, 2001)
지재			
	96'Living Design Fair (마영범, 1998)	수유재 (예찬 INSCAPE, 1998)	미재루 (김장복, 1999)
석재			
	정글집 (엑시디디자인, 1998)	아크로비스타 95평형 (민성진&중앙디자인, 2001)	조르지오 아르마니 (클라우드 실베스트린, 2001)
기와 및 흙과 토재			
	빛과 벽(박성철, 2000)	한국의상 (마영범, 1999)	운산 (namoo association, 2003)

(2) 색채의 특성

은유적 표현 방법에서 나타나는 색채의 특성은 전통건축의 색채의 화려한 배색효과를 주기 위하여 단청색을 사용하였다. 특히 주거공간의 거실은 은은하고 세련된 배색 처리를 한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나며, 이와 같은 현상은 절제와 감소를 소중히 여긴 조상들의 깔끔하고 곧은 성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은유적 표현 방법에 나타나는 색채는 재료의 영향으로 목재의 영향을 받아 무채색에 가까운 갈색계열과 석재의 영향으로 회백색 계열의 실내가 나타나며, 강조색으로 사용된 일부의 단청색은 실내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15)전체 178건의 48건 디자인 사례 중 목재 16건, 흙과 토재 3건, 지재 7건, 기와 4건, 석재 7건, 전돌 0건 등으로 은유적으로 표현되어졌다.

<표 14> 현대 실내공간에 적용된 색채 사례

주조색	전통 색채가 사용된 공간		
			
갈색계열	월전미술관 (김영희&차재욱, 2002)	평창동 S씨덕 (Design Block&i6, 2004)	한길북하우스 (김준성, 1998)
			
회백색계열	Made in TAEGU (서보명, 1993)	국립국악원	한남동 J씨덕 (이중환, 2000)
			
단청색계열	살 (최정화, 1996)	천년동안도 (진시형, 1997)	운산(namoo association, 2003)

(3) 문양의 특성

전통문양을 실내공간에 사용하기 보다는 전통창호의 창살을 현대 실내공간의 바닥, 천장, 조명박스의 무늬로써 아크릴 등의 현대적인 재료들과 함께 사용하였다. 천장의 경우 전통건축의 천장의 형태인 우물천장이 주로 나타나며, 바닥과 조명박스는 정자살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공간에 어울리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¹⁶⁾

변형적 표현 방법에서 나타나는 요인처럼 경제적인 요인과 복잡한 문양을 만드는 장인의 부족으로 인해서 복잡한 문양인 아자살, 완자살, 귀갑살은 현대 실내공간에 적용하는 빈도가 적게 나타난다.

<표 15> 현대 실내공간에 적용된 전통 문양 사례

구분	전통 문양이 사용된 공간		
			
정자살	수유재 (예찬 INSCAPE, 4998)	인터컨티넨탈 호텔	프라자호텔
			
빗살	이경민 포르에 (아석건축사사무소, 2002)	우보 (유영주, 1999)	광주미르치과 (이디스 건축사사무소, 2003)
			
아자살	국민생명(마포사옥)	포스틸 사옥 (박군희, 1996)	프라자호텔







16)띠살 2건, 정자살 7건, 아자살 3건, 완자살 0건, 귀갑살 2건, 용자살 1건 복합살 4건, 빗살 3건으로 나타났다.

4.4. 상징적 표현 방법

(1) 재료의 특성

재료의 특성은 전통건축의 주재료인 목재는 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순수 나무 소재가 아닌 현대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우드플로링, 우드패널, 무늬목 등을 이용한 목재의 형태가 나타나며, 지재는 한지를 이용하여 벽과 천장에 이용하기 보다는 조명과 소모품을 장식하는데 더 많이 활용되었다. 목재와 지재를 제외한 석재, 기와, 전돌, 흙과 토재를 이용하여 전통성을 표현한 디자인 사례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징적 표현 방법에서 전통건축의 주재료의 사용이 낮은 것으로 알 수 있다.¹⁷⁾

<표 16> 현대 실내공간에 적용된 전통 재료 사례

구분	전통 재료가 사용된 공간		
목재			
	Kunst Be (월가디자인, 1996)	교원그룹 연구원 (솔토건축, 2000)	한남동 주택
지재			
	대경대학 본관 (서정화, 1999)	창동 설령탕 (강신재·최희영, 2004)	질러존 (프렌즈디자인, 2005)

(2) 색채의 특성

상징적 표현방법에서 나타나는 색채의 특성은 직접적·변용적·은유적 표현방법에서 나타나는 전통적인 색채와는 달리 <표 17>과 같이 단청색을 연상시키는 색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색채는 주변의 자연스러운 색을 살리면서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공간을 화려한 단청색을 사용함으로써 활동적이면서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유발시키고, 세련미를 더 해준다.

<표 17> 색채의 상징적 표현 사례

구분	색채의 공간사례		
			
	NOX (손주희, 1996)	한국섬유개발원 (우인택, 1999)	자하연 한의원 (박성철, 2003)
			
	코어헨즈 사옥 (김부곤, 2003)	조디아 갤러리 (박성철, 2004)	창동설령탕 (강신재·최희영, 2004)
단청색			
	월가디자인 사옥 (박성철, 2005)	석촌동 B&B 스튜디오 (이동원, 2005)	질러존 (프렌즈디자인, 2005)

(3) 문양의 특성

문양의 특성은 전통문양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로 공간에 적용시키기 보다는 장식재로 사용되는 방법과 현대적인 재료에서 나타나는 재질의 효과로 자연문, 동물문, 식물문 등을 연상시키는 방법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표 18>의 창동설령탕은 전통문양을 장식적으로 이용한 대표적인 디자인 사례로 수막새 기와를 이용하여 메뉴판으로 활용하였으며, 방의 한쪽 벽면에는 한지의 새와 꽃, 나무 등의 자연을 그린 그림과 홀의 한쪽 벽면에 한지를 염색하여 자연스러운 패턴을 만들어 전통공간으로 표현하였다. 현대적인 재료의 재질효과로 문양을 연상시키는 대표적인 디자인 사례로는 코어헨즈 사옥을 들 수 있으며, 입구에 들어서면 바로 마주보이는 물결 패턴의 콘크리트 몰드 벽은 구름문을 연상시킨다.

<표 18> 문양의 상징적 표현 사례

구분	상징적 표현 방법의 공간 사례		
전통문양을 장식적으로 이용한 대표적인 디자인 사례			
	EXY : 정자살 - 천장의 오브제로 이용	프롤탈 울 : 빗살 - 파티션으로 이용 (박성철, 2001)	창동 설령탕 : 꽃문양 - 메뉴판으로 이용 (강신재·최희영, 2004)
현대적인 재료의 재질효과로 문양을 연상시키는 사례			
	XY 1020-기하학문 (이인, 1999)	l'espace hotel-기하학문 (민성진, 2000)	코어헨즈 사옥-구름문 (김부곤, 2003)

5. 결론

본 연구는 전통건축의 의장요소를 적용한 현대 실내공간에서의 전통성 표현 경향을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전통의장요소들을 단순화하여 표현한 변용적 표현방법이 전체 178건의 디자인 사례 중 77건으로 전체 43%로 나타났으며, 작가의 재해석으로 이루어지는 은유적 표현방법과 상징적 표현방법은 각각 48건의 27%와 39건의 22%로 나타났으며, 직접적 표현방법은 14건으로 8%로 나타났다. 즉, 형태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직접적인 표현방법보다는 형태를 단순화시키거나 재해석하여 의미를 주는 변용적 표현방법이 가장 많았으며, 은유적 표현방법, 상징적 표현방법의 순서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직접적 표현방법에서 재료는 전통건축의 주재료인 목재, 지재, 기와 등의 내·외부 모든 재료들이 원형 그대로 나타났으며, 색채는 재료의 영향으로 전통건축의 색채인 회백색계열과 갈색계열이 공간에서 조화를 이뤄 소박한 실내공간을 구

17)전체 178건의 39건 디자인 사례 중 목재 17건, 흙과 토재 2건, 지재 7건, 기와 0건, 석재 1건, 전돌 0건 등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졌다.

성하고, 문양은 창호의 창살무늬가 많이 나타났다.

셋째, 변용적 표현방법에서 재료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목재의 경우 기둥, 서까래, 보 등의 구조제적인 역할에서 그 모양의 형태를 단순하게 변형시켜 장식적인 효과를 주며, 지재는 바닥, 벽, 천장뿐만 아니라 조명박스, 파티션 등으로 사용하여 전통성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은 전통건축의 조형적 요소를 중심으로 정확한 크기와 디테일, 재료 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대중들에게 전통성 표현을 변용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색채는 현대 실내공간의 성격에 맞게 적용되었으며, 전통건축의 색채인 무채색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문양은 직접적 표현 방법과 같이 창호의 창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조명박스, 파티션, 의자등받이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며, 전통문양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장식적인 패턴으로 사용하였다.

넷째, 은유적 표현방법에서 재료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친근하게 여기는 전통재료들을 이용하여 표현하거나, 현대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전통재료들을 생성하여 전통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색채는 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색채를 바탕으로 단정색을 벽면에 부분적으로 적용하였다. 문양은 창호의 창살에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실내공간의 다른 영역에 적용시켰으며, 현대적인 재료와 함께 사용하였다.

다섯째, 상징적 표현 방법에서 전통건축의 주재료들은 현대 실내공간에서 오브제로 공간에 사용되었으며, 색채 또한 단정색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색채들이 사용하여 공간에 적극적으로 적용시켰다. 문양의 경우 전통문양이 공간에서 갖는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공간을 꾸미기 위한 디자인 패턴으로 적용되었으며, 현대적인 재료에서 나타나는 재질의 효과로 전통문양을 연상시켰다.

이러한 결론으로 보았을 때 전통성의 표현경향은 형태에 의한 표현방법과 내용의 의한 표현방법을 적절히 혼합하여 조화롭게 표현하여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내용에 의한 표현은 형태에 의한 표현과 달리 디자이너의 전통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창의적인 설계 능력이 더 요구되어 질 것이다.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어울리는 전통을 시대에 맞게 변형시키고 재해석함으로써 이를 발전시켜 독자적인 미래의 문화로 가꾸어야 할 것이다. 전통성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향후의 전통성 표현방법에 관하여 내용별, 형태별, 연도별 등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미래 실내 공간에 전통성 표현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동현, 한국목조건축의 기법, 발인, 2002
2. 한석성,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단청, 현암사, 2004
3. 신콘사이스, 동아출판사, 1984
4. 신인호, 한국 전통주택의 실내색채 구성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98
5. 양수영, 한국 전통미술과 문양의 상징적 의미를 도입한 작품 연구, 덕성여대 석사논문, 1993
6. 정덕훈, 한국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건축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87
7. 최지연, 전통주택에 사용된 문양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2
8. 김광현, 한국 현대 건축의 전통적 표현과 그 파생개념비판, 건축과 환경, 8806
9. 이상해, 전통과 건축문화 : 그와 상관되는 보편적인 문제점들, 건축과 환경, 8806
10. 이경성, 전통과 창조, 공간, 1967
11. 공간, 1995. 1 ~ 2005. 5
12. 월간인테리어, 1995. 1 ~ 2005. 5
13. 플러스, 1995. 1 ~ 2005. 5
14. 마루, 2002. 1 ~ 2005. 5

<접수 : 2005. 10. 31>